


## 20. 모함에서 벗어난 퇴계(40세)


문정왕의 동생 윤원형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다.

에헴, 왕비가 내 누이니  
무엇이 두려우랴!




그 윤원형의 심복인 병조판서 이기의 횡포 또한  
대단했는데...

내게 눈엣가시가  
한 명 있는데 말이야...




그 이기가 퇴계를 미워했다.

가시는  
뽑아야지.



임금에게 퇴계를 모함하여

그말이  
사실이렸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퇴계를 파직시킨다.





사가독서 멤버에 이기의 조카 이원록이 있었다.

우리 삼촌이 훌륭한 선비 다 내쫓더니 이제는...



숙부인 이기를 찾아갔다.

퇴계마저 파직시켰으니 삼촌은 옳은 선비만 몰아낸다는 소문이 돌까 두렵습니다.



삼촌이 퇴계마저 물러나게 했다는 소문이 돌면 삼촌한테 이로울 게 뭘니까?

조카 말이 일리가 있네.



이기가 황급히 입궐하여 지난 번 잘못 아뢴 것을 사죄하니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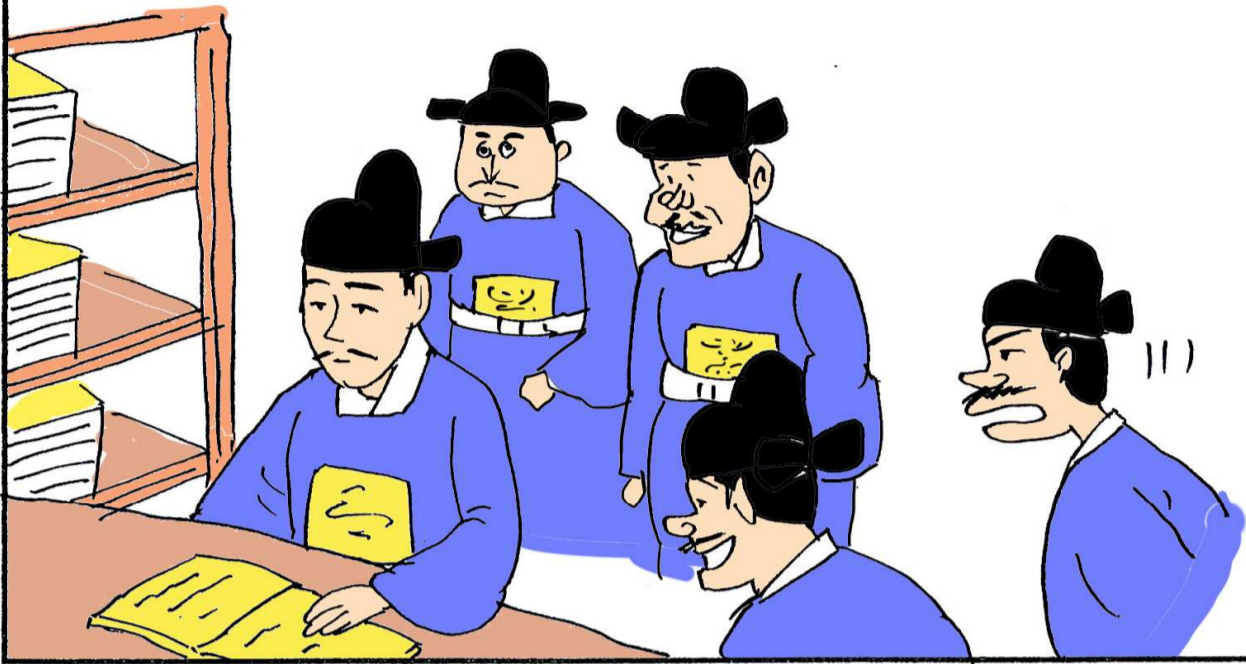
다시 아뢰옵건데 퇴계같이 훌륭한 선비를 파직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퇴계에게 다시 벼슬이 내려졌다. 퇴계의 존경스러운 삶에 항상 도우려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다.

아쉽다. 이 기회에 고향에 가서 학문이나 하려 했는데...

이후 도서관 교리가 되었다.



도서관 교리: 서적의 간행  
향과 축문,  
도장 글씨의  
필사를 맡은  
자리



동료들이 웃고  
떠들어도 퇴계는  
묵묵히 책 보기를  
그치지 않았다.



동료들이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우리도 그만 떠들고  
책이나 봅시다.

그후로도 오랫동안 홍문관 직에 종사하며 경연에 출입하였다.



이제 퇴계의 명망이 아주 높아졌다.



조정에서도 우러러 보기를 높은 산과 같이 했다.

퇴계 선생,  
존경합니다!



그리하여 지조있는 선비들의 마음이 모두 퇴계에게 돌아왔다.



조선에 퇴계선생이  
안 계셨다면  
어쩔 뻔 했나?